

SBS 사극 '대박'으로 국내활동 복귀하는 배우 장근석

스물아홉에 찾아온 '대박' 계급장 떼고 연기에 올인

지난 1년간 공백...연기가 너무 그리웠다 열아홉 '황진이' 만난 것처럼 반향점 될것

장근석(29)은 '달변가'다. 곤란한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마치 미리 답변을 준비한 것처럼 생각을 술술 풀어놓는다. 때로는 "알아서 필터링을 해 달라"며 거침없이 내치르기까지 한다.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한 그는 지난 1년 국내보다는 해외 활동에 주력했고, 학교(한양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석·박사 통합과정)로 돌아가 학생으로서 살았다.

"찾는 데가 없으니까, 하하! 자의든 타의든 국내 활동을 쉬었다. 해외 활동은 훨씬 전부 터 잡혀 있었던 것이어서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었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며 4편의 단편영화를 찍고, 학생들과 어울려 지냈다."

장근석은 지난해 1월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 어촌편'에 출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을 불과 1주 남겨두고 '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활동을 모두 접었다. 당시 논란에 대해 별다른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난을 키웠다.

"소식을 처음 접하고 선배에게 '나 탈세범이냐'고 물어봤다. 믿지 않았지만 정말 모르는 일이었다. 어느 순간 위법을 한 놈이 되어 있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어쨌든 무지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몇몇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장근석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법

한 지난 1년의 시간을 "재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돌아봤다. 아역모델로 데뷔해 "지금까지 25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다.

"항상 나만 바라보고 일했다. 모든 일이 내 위주로 돌아가야 했다. 학교에서 영화를 만들며 남을 위해 일해 보니 깨닫는 것도 많았다. 치기 어린 20대를 보내고 의미 있는 서른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장근석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시선은 한류스타와 허세, 호감과 비호감을 오간다. 그 자신도 "왜 내가 그렇게 비치는지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 차렸다"고도 했다. 지난해 공백의 감정을 이번엔 제대로 풀겠다는 각오다.

"다른 연기자들을 보면서 진정한 배우가 되고 싶다고 느꼈다. 연기가 너무 그리웠다. 공부도 많이 했다. 스무 살이 되기 전 열아홉 살에 느꼈던 심정과 비슷하다. 그때 사극 '황진이'를 만난 것처럼, 스물아홉에 새 드라마를 만난 것은 운명과 같다. '내 인생 내가 찾아가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다."

장근석은 3월 방송 예정인 SBS 사극 '대박'에 출연한다. 최민수, 여진구, 강하늘 등 안정된 연기로 인정받은 이들과 함께한다.

"세 편의 드라마를 연달아 맡아(?)먹었다. 하하! 하지만 이제 계급장 떼고 배우들끼리 치열하게 싸워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자신을 전부 던질 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20대의 끝자락에 선 장근석은 지난 시간 "나만을 위해 일했다"고 돌아본다. 이제 곧 서른의 초입에 들어서게 될 그의 "연기자로서 회복할 자신감"의 30대는 어떤 모습일까.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2년 2월1일> '입영열차 안에서' 히트 김민우 군 제대했던 날

가수 겸 이사가 1일 입대한다. 이에 앞서 '나 군대 간다'라는 노래를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입영노래의 또 다른 노래로 기억될 만하다.

입영노래는 1970년대말 최백호가 내놓은 '입영 전야'를 비롯해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대표 곡으로 꼽힌다. 하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다. 김민우의 히트곡 '입영열차 안에서'다. 노래는 '입영전야'나 '이등병의 편지' 속 비장하거나 비감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입대하며 연인과 헤어져야 하는 이야기를 담은, 1990년대 청춘의 정서를 상징한다.

1992년 오늘, 김민우가 군 제대했다. 1990년 여름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 보여주진 싫어 / 손 흔드는 사람들 속에 / 그대 남겨두진 싫어'라고 노래하며 방위병으로 입대하던 김민우는 제대 이후 역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하지만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은 대중에게 너무도 길었을까. 김민우는 입대 이전에 미치지 못하는 위상으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김민우는 고교(대원외고) 시절 스쿨밴드에서 활약하고 대학(경원전문대) 졸업 후 서울 강남의 카페에서 노래하다 MBC 송창식의 PD의 눈에 띄어 무대에 나왔다. 김민우는 지난해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록밴드를 하고도 고드진 친구가 윤종신이었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1990년 그야말로 '해성처럼' 가요계에 등장한 그는 그해 봄 '사랑일뿐이야'로 데뷔하고 맑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외모와 여린 듯 감성적인 노래로 커다란 인기를 모았다. 전국DJ친목회가 그해 1년 동안 집계한 순위에서 최고 인기가수와 노래도 김민우와 '사랑일뿐이야'였다. 데뷔 이후 불과 3개월여 만에 가요계 정상에 오른 그는 뒤이어 '입영열차 안에서' '휴식 같은 친구' 등으로 인기를 몰아갔다.

그는 제대 이후 다시 무대에 나섰지만 예전의 명성은 되찾지 못했다. 재기를 꿈꾸던 1996년 녹음실을 만들어 음반을 준비했지만 또 다른 입주자가 신병을 비판하며 LPG가스를 누출해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불운도 겪었다.

이 같은 아픔을 딛고 김민우는 현재 수입자자동차 딜러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판매도 1위를 기록하며 능력을 발휘한 그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빅마우스

- "강동원도 촌놈이다." (배우 황정민) 1월 31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영화 '검사와 전'에 함께 출연한 강동원에 대해 "느낌이 촌스럽다. 웃은 그렇지 않아 아이러니하다"고 소탈함을 칭찬하며.
- "데뷔 후에도 직업에 대해 고민했다." (걸스데이 민아) 1월 방송하는 SBS '힐링캠프-500인' 녹화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해도 행복하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며.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섹시한 정당 만들겠다" 김부선, 국회의원 출마 선언

심은하·황혜영 '정치인 아내' 홍보 주목

배우 김부선이 1월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무소속이며, 조선에서 가장 섹시한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반값 관리비와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아파트 정원, 비리 없는 투명한 관리비 회계 실시간 공개" 공약을 내걸었다. 온라인상에서는 팬화와 격려가 교차하고 있다.

김부선이 이번 4·13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실제로 출마할지는 미지수지만, '선거의 계

절'이 다가오면서 연세가도 총선과 관련한 다양한 인연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배우 심은하다. 출마를 선언한 남편 지상욱 새누리당 중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신년 연하장에 함께 등장하는 등 '정치인의 아내'로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투투 출신 방송인 황혜영도 정치인의 아내다. 남편 김경록씨는 1월 국민의당 공보단장으로 선임됐다.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 외부인사로 처음 영입돼 화제를 모았다.

가수 김장훈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1월23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김찬영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김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그로부터 이틀 뒤 SNS를 통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랑'에 대한 지지였다"고 해명했다.

선거철이 되면 연예인들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다양한 유혹과 청탁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때문이다. 자의든 타의든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도 많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인연을 맺고 있는 연예인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김현경 기자 gyummy@donga.com



남성청결크림

남성 희소식

지속적으로, 만족스럽게 남자에게 참 좋은데 ~

보인당 **"신비고" 골드**

신제품 업그레이드 된 "신비고 골드" 출시!

남성전용크림으로 고민 해결!!

남성을 위한 남성전용크림

- 개발자 박재성 박사
- 제품종: 보인당 신비고 골드
- 제품구성: 50mgx2명

제품성분 (자연성분 10종)

인삼, 오가피, 개암, 황기, 행인, 박하

남성을 위한 "신비고" 상담문의: 1670-5467

그것 참 신통하다!

12步

아하!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들던 바로 그 제품이구나!

참 좋은데... 일단 써보신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

붙이고 12걸음만 걸으면 가뿐해진다는 12보!

걸리고 쭈시고 시큰거리는 곳을 신속하고 빠르게 ~ 신통방통 - 강력한 음이온 지속 방출 칩 부착 패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입니다! 간편하고 쉽습니다!

50분 한정 가격구매 찬스!!!

불편한 곳에 붙이세요.

상담문의 1670-5465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책! 저자의 운명적인 삶, 체험으로 쓴 책

나는 25년 동안 한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 화를 내지 않는 비결 -

지금까지 나온 어떤 책에도 화를 내지 않는 비결은 하드낸 있지 소프트는 없었다. 저자는 소프트를 개발하여 누구나 화를 내지 않고 감사함이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했다.

▶ 가격 : 15,000원 (무료배송) 저자:정라훈

4080 자신감 (변강식 만들기)

- 성의 혁명과 구원 -

1. 40대가 되면 남자의 성능력은 떨어지기 시작 한다.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 몸이든 사람, 독신자, 고행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요법.
3. 2030대보다 더 강해지며 정수 예도 도움이 됨.
4. 위기의 성문란을 바로 잡음.

▶ 가격 : 20,000원 (무료배송) 저자:정라훈

건강수명 120비결

-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법 -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쳐치면서 장수하는 법

1. 장수사혈요법
2. 마음의 비결
3. 먹거리의 비결
4. 운동의 비결
5. 성의 비결

▶ 가격 : 15,000원 (무료배송) 저자:정라훈

*** 3권 신청일 경우 3만원 무료배송**

전화: 070-8223-0222, 010-4303-7966
온라인: 농협 351-0210-5294-73 정경균
www.pm120.kr woorkong@hanmail.net

SK 텔레콤 kt LGU+

핸드폰 1인 대리점 사업자 모집

초대박사업

신규, 번호이동, 재가입 특혜

010-4388-7789